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 과학기술계 학부를 중심으로

김 근 배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The Foundation and Division of Kim Il Sung University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Technical Disciplines

KIM Geun Bae

Department of Science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im Il Sung University of North Korea was successfully founded in 1946 despite of poor circumstances right after the liberation. It happened largely because political leaders, contrary to a generally accepted idea of that days, appropriated the colonial vestiges including mainly technical and medical institutions. Owing to such endeavor, engineering and medical schools could be better equipped than the other disciplines. However, old-fashioned thought spreaded among the existing faculties and students continued to exist as ever.

The separation of the specialized colleges from the university in 1948, with the help of advisory groups of the Soviet Union, resulted in the furthe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echnical disciplines. And then the university and the colleges ran into the counter direction: the former focusing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ried to be faithful to the socialistic ideology, while the latter became to emphasize the technical speciality. As a result, the institutional base to produce technocrats could be built up early and firmly in North Korea.

Key Words: Kim Il Sung University, Specialized College, Technocrat, Ideology, North Korea

* 이 논문은 1999년도 전북대학교의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을 볼 때 흔히 새롭고 독특한 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보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 논문이 다루는 시기는 해방 직후로서 일제의 식민지 유산을 제거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던 때였다. 이 때문에 지난 시기에 만들어진 역사적 흔적이나 존재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과, 무시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까지 여겨질 수 있었다.

북한 최고의 대학은 누가 보든 역시 김일성종합대학이다.¹⁾ 대학이 없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총력을 기울여 세운 대학일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 통치자의 이름이 그 앞에 당당하게 붙여졌다. 이 대학은 북한이 새롭게 추구하던 사회주의체제라는 토양에서 그 체제가 지닐 수 있는 온갖 장점을 체현한 자랑스런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북한으로서 이 대학은 다른 사회와의 차이를, 즉 북한이 그에 비해 우월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정치 권력이 아닌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근원적인 단절이 있을 수 있을까?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최고 교육기관인 김일성대학이 이전의 역사와 아무런 관련 없이 만들어진 것일까? 해방직후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정치적 구호로까지 대대적으로 내세운 북한일지라도, 필자가 보기에, 역사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 교육체계를 처음부터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듯하다.

더구나 김일성대학은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에 관련한 경험이 부재했음에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세워졌다. 이같은 상황은 북한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기존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평양공업전문학교와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실제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북한 김일성대학은 이들 전문학교를 식민지 유산으로 간주하여 외형적으로는 일소한 가운데 새롭게 창조된 것으로 보여졌지만 내면적으로는 평양공전과 평양의전을 실질적인 태반으로 삼아 잉태되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새롭게 드러난 혁명적 모습은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 볼 것 같으면 적지 않게 기존의 유제(遺制)를 지반

1) 김일성대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신효숙, “해방 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 김일성 종합대학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北韓研究學會報』 제2권 제2호(1998)와 金基奭,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 『教育理論』 제10권 제1호(1996)가 있고 북한에서 오래 전에 자체적으로 발간한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10년사』(평양, 1956)가 있다. 이 연구는 이들 논문과 책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이 시기 북한의 교육에 관해서는 申孝淑, “蘇軍政期 北韓의 教育政策”(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8)과 李尙珪, “北韓·社會主義 普通教育의 形成 1945-1950”(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으로 하여 서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평양공전과 평양의전으로 일컬어지는 이 역사적 잔재는 김일성대학의 창설, 운영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형, 퇴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오히려 그같은 관점과는 다르게 기존의 잔존물이 실체를 잃어가면서도 만들어지는 과정중에 있던 김일성대학의 형성과 변모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가하며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갖 추어진 역사적 유제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우일수록 그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은 채 한 동안 유지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복제력까지 지닐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무엇보다도 소련을 본보기로 삼아 김일성대학을 발전시키고자 했으므로 그에 미친 소련의 영향이 함께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북한의 김일성대학, 뒤이어 그로부터 분리되어 태동한 평양공업대학과 평양의학대학 등이 이전의 오래된 유제와 소련의 새로운 영향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독특한 모습으로 자리잡아 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리라 본다.

2. 구제(舊制) 전문학교를 모체로

김일성대학은 북한 최초의 대학으로서 1946년 10월 1일에 실질적인 출범을 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날을 “최고 학부 김일성 종합 대학이 창설”된 공식 개교일로 기념하고 있다. 대학이 전무했던 상황이지만 새로운 사회체제 하에서 자체의 힘과 노력으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종합대학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김일성은 개교식 연설에서 “이 종합 대학의 창설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영광이며 또한 우리 민족 사상에 찬란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거대한 사변입니다”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²⁾

북한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표출된 것은 해방 후 얼마 되지 않은 1945년 11월에 들어서였다.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교육부문 관계자들과 <종합대학을 창설할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하였고 이어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학기성회가 조직되었다.³⁾ 이 종합대학의 목적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게 진보적 사상에 입각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고 갈 사회주

2) 김일성 종합대학, 앞의 책, 16-27쪽. 개교식은 9월 15일에 열렸으나 실제 개학은 10월 1일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3) 김창호, 『조선교육사』 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176쪽. 아울러 金基範, 앞의 논문, 221-224쪽에도 김일성대학 설립과정의 기술되어 있다.

의적 민족간부, 즉 사회주의 사상과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의 주도세력을 새로이 양성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대학 설립은 북한에서 시급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대학설립 작업은 곧바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통치체제가 다소 안정화된 1946년 중순에 들어서야 그 모습이 드러났다. 5월 29일에 <종합대학 창립준비위원회 조직에 관한 건>의 발표를 계기로 종합대학의 창설이 임시인민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⁴⁾ 여기에는 소련군정에서 “국립종합대학의 창설 및 대학 산하의 학문 연구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 지시한 것⁵⁾도 한 몫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46년 7월 8일에는 종합대학에 관한 구체적인 설립안이 대외적으로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의 대학 설립안은 적어도 한달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한다. 6월 1일에 작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소군정 보고서 자료에 그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후의 설립안은 종합대학을 김일성대학으로 칭한다는 것과 모집 학생수가 약간 줄어든 것만이 이전과 차이가 날 뿐이었다.⁶⁾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 대학 설립안의 구상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대로 소군정보고서에 먼저 드러나 있는 것에 주목하여, 소군정에 의해 주도, 지원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마련해서 사전에 소군정에 알리고 공표는 나중에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대학창립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결과를 마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만 그 이전에 대학기성회가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설립안이 사실 당시 북한의 현실적인 제반상황을 세세하게 고려, 반영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그것은 북한에서 주도해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북한에서는 종합대학 설립안을 적어도 한달 정도 지난 후에 발표하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대학 설립을 곧바로 추진하기가 힘들었던 점이 그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곳에는 대학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교수 경험을 지닌 교수인력, 입학 자격을 갖춘 학생,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설비 등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남한의 미군정에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을 6월 19일에 발표하자 북한도 서둘러 종합대학 설립안을 발표해서 추진했다고 여겨진다.⁷⁾ 그 근거로 북한은 자신이 지향하는 사회체제의 우월성을

4) 창립준비위원회에는 교육국장 장중식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여하였다. 臨時人民委員會, “綜合大學創立準備委員會組織에 관한 件”, 鄭慶謨·崔達坤 編, 『北韓法令集』 第4卷(大陸研究所, 1990), 68쪽.

5) 당시 소군정에서는 교육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일제 식민지교육의 청산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신효숙, 앞의 논문, 200-201쪽.

6) 같은 논문, 204-205쪽.

7) 이는 사실 상호작용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미군정의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이 북한의 대학 설립을

드러낼 중요한 하나로 남한보다 좋은 대학을 빠른 시일 안에 설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북한 내에서는 종합대학 설립을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⁸⁾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갓 벗어난 때여서 대학을 세울만한 재정적, 물질적 자원이 결핍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을 적절히 시킬만한 교수인력이나 심지어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도 극히 적어 운영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대학 설립을 미루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종합대학은 부득이하게 이전에 있던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계승,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이미 설립안의 제2항에서 “평양의학전문학교와 평양공업전문학교는 대학으로 승격시켜 북조선종합대학에 편입시킴”⁹⁾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두 전문학교가 새로 설립되는 종합대학의 실질적인 모체가 되었다. 아울러 건물과 설비도 이들 전문학교의 것들을 그대로 인계해서 사용하였다.

당시 평양에는 두 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었던 것이다. 이 중 평양공전은 식민지시기에 세워진 것이기는 하나 사실은 일제가 아닌 한국인이 설립한 학교였다. 광업가 이종만이 신사참배 거부문제로 송실전문이 폐교되자 각계의 지지 및 후원을 받아 1938년에 대동공업전문학교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일제가 전쟁의 확대와 패퇴로 위기에 처하자 이 학교를 강제 접수하여 평양공전으로 만들어 버렸다.¹⁰⁾ 평양의전은 이와는 다르게 일제에 의해 세워진 것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의 고등교육 열망이 받아들여져 기존의 의학강습소를 흡수하여 1933년에 설립되었다.¹¹⁾ 이들 전문학교는 해방직후까지도 평양 뿐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도 유일했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이들 전문학교의 책임자였던 신건희와 정두현은 대학창설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어 종합대학

직임에 자극받아 시급히 마련, 강력하게 추진된 면이 있고 그것은 다시 역으로 북한이 김일성대학 설립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8) 도상록, “《첫 졸업식을 가진 것은 종합대학 발전에서 뜻깊은 일입니다》”, 『인민들속에서』 (1978), 160-161쪽; 金基奭, 앞의 논문, 222쪽.

9)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北朝鮮綜合大學 創立에 關한 件”,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司法局 編纂, 『北朝鮮法令集』 (1947), 226-227쪽.

10) 金根培, “日帝時期 朝鮮人 과학기술인력의 성장”(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306-324쪽; “日帝時期 평양의 대동공업전문학교와 설립자 李鍾萬”, 全國歷史學大會準備委員會, 『第39回 全國歷史學大會發表要旨』 (1996), 309-316쪽.

11) 奇昌德, 『韓國近代醫學教育史』 (아카데미아, 1995), 257-280쪽.

창립 준비에 관여하였다. 신건희는 경도제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대학원에서 연구경험을 쌓은 후 대동공전과 평양공전 교수로 활동하였다. 해방후에는 평양공전 교장, 이어서 중앙연구소 소장, 홍남공대 학장으로 재직하며 북한 과학기술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였다. 정두현은 동경제대, 동북제대에서 각각 농학과 생물학을 전공한 후 숭실전문 교수, 나중에는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숭실전문이 폐교된 다음에는 대북제대에서 다시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해방후 평양의전 교장, 평양의대 학장으로 활동하였다.¹²⁾ 북한 학계에서 이들의 높은 명성과 활발한 활동은 종합대학에서 평양공전과 평양의전이 차지하는 위상을 자연스럽게 보다 높이는 효과도 낳았을 것이다.

결국 공학과 의학 분야는 김일성대학에서 가장 비중있는 학부가 되었다. 당시에 제시된 대학의 학과 구성과 학생 모집안(표 1)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잘 드러난다.¹³⁾ 우선 학과 수를 볼

<표 1> 종합대학의 조직안 (1946. 7. 8)

학 부	학 과	모집인원	보결생
공 학 부	전기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응용화학, 토목공학, 광산학, 건축공학, 방직학과	360명	2년 70명
농 학 부	농학, 림학, 수의축산학과	120명	
의 학 부	의학, 약학, 치과의학과	160명	2년 10명 3년 20명
문 학 부	사학, 문학, 교육학과	200명	
리 학 부	수학, 물리학과	80명	
철도공학부	기계공학, 운전공학, 철도토목공학과	120명	
법 학 부	법학, 경제학과	150명	
총 계	7학부 24학과	1,190명	100명

자료: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10년사』 (1956), 18-19쪽.

12) “[신건희] 리력서, 자서전”, 홍남공업대학, 『리력서』 (1949); “[정두현] 리력서, 자서전”, 평양의학대학, 『리력서』 (1949).

13) 김일성 종합대학, 앞의 책, 18-19쪽.

것 같으면 공학부 8개, 의학부 3개로 이들이 전체의 거의 절반에 달하였다. 이는 이 대학이 기존의 평양공전과 평양의전을 그대로 이어받은 결과였다. 평양공전에는 방직학을 제외한 전기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응용화학, 광산학, 건축공학, 토목공학이 이미 운영되고 있었다. 평양의전도 약학과 치의학이 명확하게 독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전공과목으로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었다.¹⁴⁾ 수업년한은 인문사회계가 4년으로 되어 있었던 데 비해 과학기술계는 5년으로 길었다.

모집인원은 보결생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공학부와 의학부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특히 공학부는 그 규모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커 전체의 1/3에 달하는 36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게 되었다. 앞서의 설립안 제4항에서 “공업전문학교 제2학년 진급생과 의학전문학교 제3학년 진급생은 현전문학교강령에 의하여 대학생으로 진급할 권리를 줌”¹⁵⁾이라고 했던 데에 크게 힘입었다. 더구나 공학부와 의학부에는 전문학교 졸업 예정자들로써 종합대학의 2학년과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이 각각 257명, 63명이 있었으므로¹⁶⁾ 학생 구성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규모 이상으로 컸을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과학기술계 학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떨어지는 편이었다. 입학자격을 “진보적 인민주의 사상을 가진 17-40세까지의 남녀로서 구제 중등학교 졸업 및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¹⁷⁾로 했던 것처럼 나이와 학력의 제한을 크게 완화했음에도 특히 기초과학 부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창립 첫해의 경우 대학 전체적으로 1,210명 모집에 2,265명이 지원했고 다음해에는 2,500명 모집에 6천여명이 모여들었다. 1947년 학부별 지원상황을 보면 평양시 중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678명이 지원을 했는데 의학 202명, 공학 145명, 역사문학 124명, 그 뒤를 경제법학, 화학, 농학, 운수공학, 물리수학 순서를 보였다.¹⁸⁾ 그나마 공학부는 평양공전에서 진급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덜 겪었다. 당시까지도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사회 저변에 아주 강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진은 개학 예정일이었던 9월 1일까지 총 83명의 인원이 임명되었다.¹⁹⁾ 7개 학부와 1개 예

14) 이같은 사실은 당시 교원들의 전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平壤工業專門學校, “直轄學校教職員履歷書綴(平壤工業專門學校分)”(1946); 平壤醫學專門學校, “職員履歷書及訓育方針 提出の件”(1946).

15)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北朝鮮綜合大學 創立에 關한 件”, 앞의 자료, 226-227쪽.

16) 김일성 종합대학, 앞의 책, 19-20쪽. 실제로는 공전 학생들 중 일부가 물리수학부 2학년으로 편입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1949년 제1회 졸업생 19명이 이 학부 소속이었던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

17) 『조선신문』(1947. 7. 6, 7. 24).

18) 『민중일보』(1947. 7. 26). 참고로 평양교원대학의 경우는 지방자 218명 중 국문 71명, 체육 34명, 지리 34명, 외국어 20명, 역사 19명, 이어서 박물, 화학, 수물 순서로 되어 있었다.

19) 당시의 글을 보면 실제로는 68명이 임명되었지만 뒤늦게 15명 정도가 소급해서 발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과의 조직구성에 비추어 볼 때 학부별로 평균 열명 내외의 교원이 확보된 것이었다. 북한 스스로도 “대학 개교를 위한 준비 사업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교수 교원 진영을 형성하는 문제”²⁰⁾였다고 밝히고 있듯이 교원 충원이 크게 미흡하였다. 다만, 의학부 28명, 공학부 21명, 문학부 20명이었던 것에서 보듯 이들 학부만이 비교적 다수의 교수인력을 갖추고 있었다.²¹⁾ 그동안 국내의 대학에서 전공자가 많이 배출된 문학 분야와 달리 공학과 의학 분야는 그 대상인력이 매우 적었음에도 평양공전과 평양의전에 모여있던 교원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힘입어 이들 전문학교 출신 교원이 대학 전체적으로 65%를 차지할 만큼 그 숫자가 많았다.

하지만 공학부와 의학부를 제외한 다른 과학기술계 학부는 교원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개학 예정일이었던 1946년 9월 당시 확보된 교수진을 보면 리학부 5명, 농학부 3명, 철도공학부 1명에 불과하였다. 이것마저도 리학부와 철도공학부의 5명은 평양공전에 근무하던 교원으로 부터 긴급하게 충원된 사람들이었다. 이 때문에 철도공학부는 북한체제의 새로운 면으로 대내외에 내세우고자 한 것이었으나 교원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이학분야들은 교수인력을 구하지 못해 관련 전공을 개설조차 할 수가 없었다.²²⁾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교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중에서도 남한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치활동은 짧은 기간 동안에 다소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공학 분야의 경우 대표적인 중진 과학기술자의 한 명인 신건희가 책임자로 나서서 “귀하에게 북조선 김일성대학 교원을 위촉함”이라는 글귀가 담긴 위촉장을 가지고 접촉을 벌였다. 이와 함께 특히 당시 남한에서 일어났던 경성대학 도상록 교수 파면사건은 여러 명의 우수한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에 힘입어 리학부 7명, 공학부 6명이,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남한 과학기술자들로부터 확보될 수가 있었다.²³⁾

이렇듯 북한에서는 김일성대학을 설립할 때 그것을 완전히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교육기관,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폈다. 이는 당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큰 규

20) 김일성 종합대학, 앞의 책, 21-22쪽. 교원 충원이 어려웠던 이유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적었던 데다가 다수의 인사들이 서울에 몰려 있었던 것에 있었다.

21) 北朝鮮金日成人學, “敎職員 任命에 關한 件”, 北朝人委 敎育局, 『金日成人學發令件』 (1947); 平壤工業專門學校, 앞의 자료; 平壤醫學專門學校, 앞의 자료.

22) 화학부는 이듬해인 1947년 3월, 생물학부는 1948년 9월, 지질학의 경우는 평양공업대학이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광산지질학부로 개설되었다.

23) 김근배, “월북 과학기술자와 홍남공업대학의 설립”, 『亞細亞研究』 XXXX(2)(1997), 112-113쪽; 金基奭, 앞의 논문, 227-238쪽. 월북 과학기술자들은 김일성대학보다는 홍남공업대학의 설립에 훨씬 큰 도움이 되었다.

모의 종합대학을 단기간 안에 세우기 위해 취한 나름의 전략적 방안이었다. 이로 인해 대학은 이전의 전문학교를, 그리고 이후에 설치되는 전문학교는 이전의 중등실업학교를 개편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출신성분과 사상경향은 의도한 것과 달리 결코 단일하지 않았다.²⁴⁾ 특히 구제 전문학교에서 진급한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척결 대상이었던 지주나 자본가 출신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1947년 구제 평양공전 졸업생 중 근로인민층 자제는 극히 드물었고 진보적 사상을 가졌다고 평가받은 자들도 1/3 정도에 머물렀다.²⁵⁾ 이로 인해 이들 사이에는 새로운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도 서슴치 않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가 하면 토지개혁을 전면 비난하고 반소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던 점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학교 재학생 중 실제로 김일성대학에 진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애초 계획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그리고 대학 입학자격이 구제 중등학교 졸업 학력이었지만 전문학교 학생들은 2학년 진급생에 한해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나아가 교원들 중에서도 이전의 사상 잔재를 그대로 지닌 가운데 새로운 시책을 회의하고 부인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더러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당시 과학계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신건희가 과학기술 부흥을 위해 제안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 실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다.²⁷⁾ 그는 과학에 기반한 과학조선을 건설하자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술자의 양성, 종합연구소의 설치, 기술자의 생활 보장, 정부의 배려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그가 말하는 과학조선에서의 과학은 자연과학이지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과학적 사상을 뜻하거나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술자의 수양을 부분적으로 거론하고는 있으나 이는 자기 수양을 쌓아 인간 됨됨이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당시 북한정권은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자의 사회주의적 개편에 깊은 관심을 쏟았음에도 과학계에서는 중심 인물조차도 다분히 과학과 사상의 분리, 과학중심주의 등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일반적인 역사인식과는 다르게 김일성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의 경우 일제의 식민지 잔재를 어떤 면에서는 일거에 청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24) 김일성 종합대학, 앞의 책, 32-34쪽.

25) 교육국, “김일성대학 구제 평양공업전문학교 졸업생 배치에 관한 건”, 北朝人委 教育局, 『教育局 公文』(1947); “김일성대학 공학부 1947년도 졸업생 조사의 건”, 같은 자료. 여기에 졸업생들의 소속정당, 사상경향, 성품, 취직처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다.

26) 김일성대학으로 진급하지 않고 1947년 7월 말 구제 평양공전을 졸업한 사람들은 22명으로 이는 7월 초에 예상했던 13명보다도 크게 늘어난 수치였다. 교육국, “김일성대학 구제 평양공업전문학교 졸업생 배치에 관한 건”; “김일성대학 공학부 1947년도 졸업생 조사의 건”, 앞의 자료.

27) 申健熙, “科學技術의 復興策”, 『人民』(1947. 1), 122-125쪽에 그의 생각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조건에 맞추어가며 서서히 바꾸어 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남한에서보다도 더 온건한 방식을 택해 고등교육기관을 마련하고자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²⁸⁾ 그 결과 북한은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의 종합대학—특히 과학기술계 학부가 상대적으로 건실한—을 빠른 시일 안에 일단의 자체의 힘으로 성공리에 세울 수가 있었다. 물론 당시의 대학 수준은 교수진, 학생, 설비 등 모든 면에서 일제시기의 그것에 비해 나은 바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의 사상적 경향이 사회체제의 급격한 변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그대로 잔존하는 문제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2. 소련으로부터 배우다

대학이 설립될 당시 김일성대학은 소련의 대학들과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소련의 경우 종합대학은 따로 독립된 고등교육성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며 총장 아래에는 학감과 과학부총장이 있어 각각 사상성과 전문성을 나누어서 책임맡고 있었다. 학부장 다음에는 교수, 강사, 조수가 있을 뿐 조교수라는 직제는 없었다. 대학 내에는 박사 및 학사(준박사) 학위과정을 갖춘 아쓰빠란트라(대학원 혹은 연구원)가 설치, 운영중이었다. 아울러 다양한 과학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과학연구소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밖에 교과과정, 교수방식, 수업태도 등에 있어서도 서로간에 상당 부분이 달랐다.²⁹⁾

그러던 것이 1947년 초를 전후로 북한의 대학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소련의 간접적인 영향에 크게 힘입었다. 우선 대학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교육국 부국장과 대학 부총장이 소련에서 활동 경험을 쌓은 바 있는 남일과 박일로 각각 바뀌었다. 임시인민위원회의 요청으로 소련군정은 1946년 10월에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련계 한인 37명을 파견하였고 이들 중 10명 내외가 이후 김일성대학 교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소련계 한인은 그 수가 많지 않았을 뿐더러 기존의 교원들에 비해 학력 및 경력이 떨어지고 있었다.³⁰⁾ 이는 무엇보다

28) 남한에서는 북한과 달리 학교교육 전반을 볼 때 일제 말에 만들어진 과학기술계 중심의 학교체제를 식민지 잔재로 간주하여 해방과 동시에 원래의 모습, 즉 인문계 중심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29) 都相祿, 『“조聯의 大學敎育 實情”, 『人民敎育』(1947. 3), 47-48쪽.

30) 소련계 한인들 중 과학기술계 인사로는 남일(물리학), 그의 부인 박마리아(식물학), 오완묵(농학)이 있었음을 신효숙, 앞의 논문, 208-209쪽과 안드레이 란코프(김광린 역), 『북한 현대정치사』(오름, 1999), 142-146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전공교육에서 맡은 역할은, 인문사회계에서와는

소련에서 한인들이 사범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은 진학할 수 없었으므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력을 쌓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소련의 제도를 본받기 위해 각종 시찰단과 연수단을 구성해서 직접 그곳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1946년 후반부터 추진된 이들 방소사절단, 의사단, 교원단 등은 과학 기술을 포함한 각계의 인사들이 망라된 가운데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둘러보고 소련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도 받았다. 일원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은 이를 통해 앞선 소련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강렬한 인상과 감명을 한층 더 받게 되었다.³¹⁾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온 후 자신들의 시찰과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를 소련식으로 바꾸는 데 앞장섰다. 물론 이들의 견학 기간은 짧은 편이어서 보고 배운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충실했던가는 의문이 든다.

그에 따라 김일성대학에는 먼저 조직구조와 관련해서 서기장과 간부부, 교양부, 대학평의회 등을 신설하거나 혹은 대폭 강화함으로써 당에서 대학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³²⁾ 또한 각 학문분야별로 연구집단을 육성하기 위해 카페드라(강좌)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우대조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들을 포함한 대학 내의 연구사업을 지도 겸열할 기관으로 아쓰빠란트라를 설치하고 그곳에 참여할 아쓰빠란트(연구생)를 선발해서 지원하는 일도 벌였다. 그리고 교과과정도 이 시기에 새로이 개편되어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³³⁾ 이들 모두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소련의 대학체제를 모델로 삼아 추진된 것들이었다.

각 학부는 학부장과 부학부장을 책임자로 해서 짜여졌다(표 2). 학부장은 학문분야별로 대표적인 중진 인사들이, 부학부장에는 젊은 인사들이 임명되었다. 과학기술계의 경우 창설된지 얼마 되지 않은 1947년 전반기에도 책임자의 변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아 이들을 임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전문성과 특히 사상성을 두루 갖춘 사람들을 발굴해서 임명하기

달리,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31) 소련 연수나 시찰을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담이 都相祿, 앞의 글, 36-49쪽; 白鴻權 외, “技術者が 본 소련”, 『工業知識』 2(1946. 11), 88-97쪽; 盧栢熙 외, “소聯의 保健施設”, 『朝蘇文化』 (1947. 8), 83-88쪽 등에 소개되어 있다.

32) 교육국, “김일성대학 직제에 관한 건”, 北朝人委 教育局, 『金日成大學發令件』; 金基奭, 앞의 논문, 224-227쪽.

33) 이 시기 김일성대학의 개편은 北朝人委 教育局, 『金日成大學發令件』과 『教育局 公文』에 실려 있는 관련 공문들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34) 대표적인 예로 공학부는 원래 학부장 신건희, 부학부장 최윤식(이어 립두성, 김덕모), 운수공학부는 학부장 립극제, 화학부는 학부장 한형기가 맡고 있었다.

<표 2> 1947년 학부 및 кафе드라 구성

학 부	책임자	카페드라	책임자	개설일자
공 학 부	학부장 림극제(동북제대) 부학부장 김인식(대동공전)	건축학	정인창(와세다대)	47. 9
		기계학	김덕모(와세다대)	47. 10
운수공학부	학부장 유기연(여순공대) 부학부장 백락민(와세다대)			
물리수학부	학부장 도상록(동경제대) 부학부장 진평수(북해도제대)	물리학	김동운(소련 사범대학?)	47. 3
		역학	남일(소련 사범대학)	47. 3
		수학	김지정(동경제대)	47. 3
화 학 부	학부장 최삼열(동북제대) 부학부장 최윤식(경성제대)	유기화학	최삼열(동북제대)	47. 9
		무기화학	이세훈(동경제대)	47. 9
		화학공학	유연락(경성고공)	47. 9
의 학 부	학부장 정두현(대북제대) 부학부장 최웅석(동경제대)	내과학	최웅석(동경제대, 박사)	47. 3
		외과학	장기려(경성의전, 박사)	47. 3
		안이비인후과학	이호림 (경도부립의대, 박사)	47. 3
		피부비뇨과학	이성숙(경성의전, 박사)	47. 3
		세균학	안진영(장기의대)	47. 3
농 학 부	(임시) 학부장 이수일(미확인) 부학부장 김종희(북해도제대)	잠사학	계웅상(구주제대, 박사)	47. 3
		수의축산학	김종희(북해도제대)	47. 3
		림학	이수일	47. 3

자료: 北朝人委 教育局, 『金日成人學發令件』(1947).

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책임자 자리에는 상대적으로 진보성을 지니고 전문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외국에서 귀환하거나 남한에서 월북한 과학기술자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 중 공학부장 림극제는 동북제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할빈공전 교수로 활동하다가 해방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 평양공전에서 근무하였다. 운수공학부장 유기연은 여순공대 기계공학과를 마친 후 같은 대학에서 활동하다가 역시 북한으로 올라갔다. 물리수학부장 도상록은 동경제대 물리학과를 나온 다음 신경공전, 국내에 돌아와서는 경성대에서 활동하다가 월북하였다. 화학부장 최삼열은 동북제대 화학과 출신으로 이화학연구소, 해방후에는 이화여대에 있었고 북한으로 간 다음에는 그곳에서 최초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³⁵⁾

그리고 1947년 3월에 새로 제정된 교과과정을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았다.³⁶⁾ 교과목이 전체

<표 3> 김일성대학 교과과정 (1947. 3. 1)

학 부	교 과 목			
	정치철학	외국어	기초학과	전공학과
공 학 부	맑스레닌주의기본, 정치경제학, 심리학, 체육	로어, 조선어, 영어	물리학, 수학, 역학, 화학, 지질학, 도학	
물리수학부	동 일	동 일	물리학, 수학, 역학, 화학, 기상학, 천문 학, 지질학, 도학	
농 학 부	거의 동일 (정치경제학 제외)	동 일	물리학, 수학, 화학, 동물학, 식물학	
의 학 부	동 일	동 일	물리학, 수학, 유기 화학, 무기화학, 동 물학, 식물학, 광물 학, 도학	조직학, 생리학, 위 생학, 세균학, 약리 학 등 19개 과목

자료: 北朝人委 教育局, 『金日成大學發令件』 (1947).

35) 박성래, “한국 과학기술자의 형성 연구”(한국과학재단, 1995), 부록에 이들의 인적 사항이 소개되어 있다.

36) 교육국, “교원임면 확정 건”, 北朝人委 教育局, 『金日成大學發令件』에 나와 있는 각 학부의 교과과정을 都相祿, 앞의 글에 소개된 소련 대학(모스크바 로마노소프중합대학과 레닌그라드 까리닌공업대학)의 것들과 비교하였다.

적으로 정치철학, 외국어, 기초학과, 전공학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는 소련 대학의 교과편제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각 영역에 들어있는 교과목, 예컨대 정치철학의 경우 소련 대학에서는 심리학이나 교육학이 학부에 따라 다르게 편제되어 있었으나 북한에서는 심리학이 모든 학부에 똑같이 들어있는 정도만이 달랐다. 의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에는 전공학과가 짜여져 있지 않은데 이는 1학년 혹은 2학년까지만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해서 전공학과를 3학년부터 가르치고자 한 점도 소련의 대학제도와 동일하였다. 그에 따라 이후 고학년의 경우 전공과목이 특히 강조된 소련의 교과과정을 거의 그대로 따랐을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전공과목의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소련 대학에서는 정치철학 영역의 일부 과목을 고학년에서 가르쳤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을 저학년에서 가르치게 하였다. 이는 갓 출범하는 김일성대학의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사상교육에 신경을 써서 그것을 철저히 시키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학과의 경우 소련 대학은 보다 소수의 학문 분야에 관한 여러 세분화된 교과목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 김일성대학은 여러 학문 분야의 교과목을 다양하게 포함시키고 있었다.³⁷⁾ 무엇보다도 당시 북한 학생들의 지식 수준이 낮고 교수진이 불충분했던 점이 그같은 차이를 낳게 했다고 생각된다.

카페드라 제도는 전공별 조직체로 1947년 2월에 들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한 명의 책임자를 주축으로 하고 몇 명의 교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하나의 카페드라가 형성되었다. 비슷한 전공을 한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음으로써 교육 및 연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1947년 말 당시 전체 24개의 카페드라 중 과학기술계는 앞의 <표 2>에 나와 있듯이 16개였다.³⁸⁾ 이들 카페드라의 책임자는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전문경력을 쌓은 바 있는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임명되었다. 특히 일본의 제국대학 출신, 의학부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공학부만이 의외로 카페드라 구성이 미진했던 것은 소속 교원의 수에 비해 두드러진 중진인사가 별로 없었던 데에 기인했다고 보인다.

나아가 아스빠란트라가 “인민경제와 문화후흥발전에 필요한 각종 과학 기술연구사업에 대학 내 총역량을 집중할 목적”으로 1947년 5월에 설치되었다. 원장에는 부총장 박일, 부원장에는 한

37) 일례로, 김일성대학의 물리수학부는 물리학, 수학, 역학, 천문학, 도학 이외에 화학, 기상학, 지질학으로 편제되어 있었던 데 비해 소련 대학의 물리학과는 일반물리학, 일반역학, 일반천문학, 제도와 함께 해석수학, 해석기하, 고등대수, 미분기하, 미분방정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38) 카페드라 설치는 北朝人委 教育局, 『金日成大學發令件』에 실려 있는 관련 공문들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인문사회계로는 역사문학부의 조선사, 세계사, 조선어문학, 외국어문학, 고고학, 철학, 경제법학부의 법률학, 대학 전체의 사회과학 카페드라가 있었다.

형기가 임명되고 연구원 지도는 각 카페트라 책임자가 맡는 것으로 짜여졌다. 곧이어서는 과학 기술과 관계된 중앙연구소를 인계하여 북한의 실질적인 고급인재 양성과 학술연구를 총괄하는 역할이 그곳에 주어졌다. 즉 이 기관은 “각종 과학 및 기술연구에 관계되는 일체 문제를 직접 취급하며 각 카페트라에 대한 과제부여와 그외 지도검열을 하는 동시에 연구에 필요한 각종 교섭을 직접 진행”하게 되었다.³⁹⁾

연구원은 대학 졸업자의 경우 무시험, 전문학교 출신자는 2-3년 연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학력시험을 치러 선발되었다. 수업년한이 4년 이내로 그 기간 동안에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공통과목으로 로어, 역사, 철학, 정치경제학을 가르쳐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투철한 사상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들은 매달 국가로부터 1,500원을 지급받는 급비생과 자기 부담으로 다니는 사비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7월 당시 39명의 연구원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 과학기술계는 32명으로 의학부 23명, 공학부 5명, 화학부 3명, 농학부 1명의 분포를 나타냈다.⁴⁰⁾ 이들과는 달리 기반이 부재했던 기초과학 분야인 물리수학부에는 소속 연구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듯 소련의 대학을 본보기로 한 김일성대학의 조직체제 구성은 단기간 안에 새로운 유형의 모습을 안착하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고급인재의 양성과 연구활동의 기반이 일단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었다. 카페트라와 아쓰빠란트라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당시로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학문추구 방식, 즉 교육과 연구를 연계하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잘 맞아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소련의 대학체제를 본받으려는 북한의 노력은 과학기술계 학부들이 빠른 시일 내에 기틀을 잡고 원활한 운용을 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에 힘입어 이 대학의 과학기술계 학부에서는 1년 정도 지나자, 다분히 개관하는 보고들이 주류를 이루었겠지만, 학문적인 결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례로, 대학창립 1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학술보고대회가 1947년 10월에 1주일 동안 열렸는데 그 때에 여러 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전체 발표 건수 33개 중 21개가 과학기술 분야의 것들이었다(표 4).⁴¹⁾ 더구나 인문사회계보다 과학기술계는 까다로운 부대여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학술성고가 제시되었다. 특히 이전의 평양공전과 평양의전을 이어받아 교수진, 연구시설, 건물공

39) 北朝鮮金日成大學, “大學研究院에 關한 件”, 北朝人委 教育局, 『金日成大學發令件』.

40) 인문사회계로는 역사문학부 5명, 경제법학부 2명의 연구원이 있었다. 北朝鮮金日成大學, “아쓰빠란트 所屬學部別 給費生 定員 規程認可 申請에 關한 件”, 北朝人委 教育局, 『教育局 公文』.

41) “創立一週年の 北朝鮮金日成大學”, 『北朝鮮通信』(1947. 10. 21), 8-9쪽. 화학부의 일부 인사도 공학부에 있다가 소속을 옮긴 사람이다.

<표 4> 종합대학창립 1주년 학술보고대회

학 부	연구자	발표 제목
공 학 부	이용근(금속)	「칼슘·시리시이드」에 대하여
	한순덕(전기)	電氣爐波器 설계
	김재명(광산)	조선산 흑연에 관하여
	김덕모(기계)	무연탄 가치기준에 대하여
	김인식(금속)	高速度鋼의 열처리와 절삭능력
	림극제(전기)	鱗狀 흑연의 전기정선에 관하여
물리수학부	도상록(물리)	소립자 역학
	김진문(천문)	天氣예보에 대하여
화 학 부	최삼열(화학)	有機유리에 관하여
	이세훈(화학)	조선의 전기화학공업
	유연락(화학)	조선의 加里자원
의 학 부	김병무(안과)	위막성 결막염에 관한 연구
	임성재(위생)	姜赧昱 항균성 물질에 관한 연구
	배만규(소아)	소아 폐염과 膿腦의 병원체 및 균혈증
	김세철(병리)	경동○腺의 병리학
	장기려(외과)	식물성 신경외과
	김현세(위생)	장내 병원균의 검사성적
	안진영(세균)	코레라균에 관한 몇가지 知見
	최응석(외과)	혈장 蛋白의 기원과 임상에 있어서의 그 의의
농 학 부	김종희(수의)	비-루쓰학상으로 본 牛疫연구의 근황
	원홍구(생물)	야생동물 보호와 인민경제와의 관계

자료: “創立 一週年の 北朝鮮金日成人學”, 『北朝鮮通信』 (1947. 10. 21), 8-9쪽.

간, 연구원 등을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갖추고 있던 의학부와 공학부에서 많은 연구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들 학부들이 비교적 단기간 안에 학문적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다.

한편, 북한의 대학에서는 학생 및 교원들의 사상성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일성대학 내에 중등교육과정으로 설치된 예비과는 혁명가의 가족이나 유가족, 그리고 해방후 정당사회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교육시켰다. 이들은 졸업후 대학으로 진학하여 학내의 사상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앞장선 “가장 적극적인 열성 분자들”이었다. 또한 신입생 선발에서 “학과목 성적이 우수하며 정치 사상적으로 건실”한 면이 고려되었기에 학생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이전과 달리 노동자, 농민, 소시민의 자제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들이 취학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설치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였다.⁴²⁾ 이처럼 북한에서는 근로인민 출신의 새로운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여러 조치들을 취했던 것이다.

대학 내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반동적인 정치사상적 요소를 척결하고 그에 대한 통일을 꾀하는데 깊은 관심을 쏟았다. 대학 당단체는 민청과 함께 다양한 조직체계를 만들어 정치사상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각종 씨클 및 문화활동을 통해서 다른 정서와 생활을 익히도록 하였다. 각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한 “모범학생의 뒤를 따르는 운동”은 그 지향하는 바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었다. 즉 모든 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업성적만이 아니라 사상교양수준, 단체조직생활이 두루 뛰어나야 했던 것이다.⁴³⁾ 그리고 학생들은 근로인민들과의 접촉을 빈번히 함으로써 정치사상적 자각을 한층 더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인민위원회 선거의 선전사업에 참여시키고 문맹퇴치사업에 대거 동원되며 대학농장 개간 및 신교사 건축공사에도 투입되었던 점 등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었다.⁴⁴⁾

교원들의 경우에도 교수교양사업이 벌어져 사상성을 다지는 데 일층 노력을 쏟았다. 대학내 맑스-레닌주의 까비넷트(연구실)는 한달에 두 차례씩 교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열었으며 세미나 및 강습회 등도 추진하였다. 방학 기간에는 국가에서 단기강습회를 개최하여 공통과목으로 정치철학에 관한 강습을 실시하였다. 특히 1948년부터는 각 강좌마다 로어 학습반을 만들어 로어 습득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이는 로어 학습을 통해 소련의 전공 서적을 읽도록 하기 위함과 동

42) 신호숙, 앞의 논문, 205-207쪽; 김일성 종합대학, 앞의 책, 21-23쪽; 『로동신문』 (1948. 10. 2). 창립 3년째인 1948년 후반에 김일성대학의 학생 구성을 보면 노동자와 농민의 자제들이 전체의 80%에 이르렀다고 한다.

43) 김철,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내 우리당단체의 사업”, 『근로자』 (1949. 8), 105-109쪽; 김연, “자라나는 民主學園: 김일성종합대학 편”, 『청년생활』 (1949. 4), 47-50쪽; 『민주일보』 (1947. 12. 27).

44) 김일성 종합대학, 앞의 책, 66-69쪽.

시에 교원들에게 소련을 친근하게 여기도록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낳았다. 아울러 대학 전체적으로 매달 실시되는 연구발표회에서는 과학과 관련해서 미추린학설, 파블로프학설 등과 같이 사상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주제들이 주되게 다루어졌다.⁴⁵⁾

4. 두 갈래의 길: 사상성 대 전문성

김일성대학은 1948년 중반 대학 전반의 자문 및 교육에 소련 전문가단의 본격적인 참여를 계기로 그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또 다시 변모하였다. 북한 인민위원회와 소련 외무성은 이들 소련 학자의 초빙을 위해 1947년 12월에 협의서를 채택하였다.⁴⁶⁾ 그 주요 내용은 먼저 종합대학 사업을 위해 3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문 및 전문가를, 강의와 경험교환을 위해 2~3개월씩 학자 및 교수들을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장기간 체류할 고문은 개별적으로, 단기간 머무를 학자들은 집단적으로 초빙하는 방식을 띠었다. 이들 학자와 교수의 임무는 강의와 실험실습, 세미나 수업의 진행, 생산실습 및 졸업계획의 조직, 교수안의 연구 및 작성, 대학원생 및 학과주임 그리고 실험 및 학술카비네프의 책임자 조직, 국가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실시에의 참여, 각종 프로그램 연구 등을 자문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들은 대학의 조직, 운영, 교육 등 모든 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련정부는 종합대학의 교육과정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용 자료와 교수용품도 지원하였다.

그에 따라 소련의 학자들이 다음해부터 파견되더니 7월에는 소련의 과학아카데미 소속의 세계적인 생물학자 오파린(A. I. Oparin) 박사를 단장으로 한 대규모 학자일행이 북한에 들어왔다. 이들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활동중인 각계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전공별로는 공학 6명, 이학 4명, 농학 3명, 의학 1명, 인문사회과학 3명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⁴⁷⁾ 이 학자일행은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3백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 수강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대학에서 3주간에 걸쳐 하기학술강습회를 개최하였다. 그 진행은 공통된 과목에 대한 일반적 강의를 있는 동시에 각 부문별로 전문분과연구회가 열리는 방식이었다. 주요 내용은 연사들의 인적 구성에서 보

45) 김일성 종합대학, 앞의 책, 44-47쪽.

46) 이 합의서의 내용은 신효숙, 앞의 논문, 213쪽에 보다 상세히 인용되어 있다.

47) 소련 학자일행의 명단은 『조선중앙년감』(1949), 133쪽에 간략히 실려 있다. 그리고 오파린 박사에 대한 인상과 그의 북한 여행은 韓雪野, “오파린博士 夫妻와 나와 朝鮮의 自然”, 『朝蘇文化』(1949. 4), 158-172쪽에 소개되어 있다.

듯이 과학, 공학, 농학 등 과학기술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어서 이들은 학생들과 일반인들까지도 참가한 학술강연회를 수 차례 열었고 신문 또는 잡지를 통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3개월간 머무르는 동안 나머지 시간에는 각 대학의 실험기구 설치와 교수강령 작성 등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⁴⁸⁾

뿐만 아니라 소련정부는 김일성대학에만도 1948년부터 전쟁 전까지 4만권 이상의 학술서적과 2,600점 이상의 실험기자재, 2,200개의 표본 등을 제공하였다.⁴⁹⁾ 북한에서는 일본 서적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소련으로부터 지원된 책들을 번역해서 교재로 삼게 되었다. 특히 1948년 중반 이후 소련의 대학교재에 대한 번역이 활기를 띠며 짧은 시간 안에 그 성과물들이 모든 학문분야에서 가장 주된 교과서와 참고자료로 자리를 잡았다. 결국 로어와 소련 서적은 북한의 연구자들에게 학문활동에 요구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젊고 사상이 높은 사람일수록 로어를 직접 배워 소련의 학문을 적극 익히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당시 고등교육을 책임맡고 있던 한 인사는 이 학자일행의 방문을 필두로 한 소련의 원조로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고등교육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었다며 다소 과장된 어조를 띠고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 바 있었다.

위대한 우방 소련의 방조로 북조선 인민 교육문화는 일본의 식민지적 노예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소탕하고 선진적인 민주주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조국의 민주발전에 소요되는 고귀한 과학기술자와 유능한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완전히 정비하였다. (중략)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노예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낙후되었던 기술교육면에서 낡은 교육을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또 선진적인 기술교육과 완전히 절연되었던 조선 과학기술교육에 새로 획기적인 근원으로 되는 것이다.⁵⁰⁾

이에 힘입어 가시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효과는 김일성대학의 조속한 분리였다. 물론 북한에서 나중에 발간된 『김일성저작집』 1권에는 김일성이 이미 대학 창설 전에 “종합대학은 … 앞으로 내을 대학들의 모체로 될 것”이라는 교시를 하였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⁵¹⁾ 그러나 이는 실제 사실과 틀린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그 당시의 문서나 신문 등의 자료와 심지어는 후에 나온

48) 장익환, “기술교육사업에 있어서 소련학자들의 방조”, 『대중과학』 (1948. 12), 33-36쪽; 『조선중앙년감』 (1949), 133-134쪽. 이들 자료에는 서로간에 수치가 틀린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49) 김일성 종합대학, 앞의 책, 59쪽. 여기에는 2,200개의 도표를 기증받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 도표는 표본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0) 장익환, 앞의 글, 33-34쪽.

51) 『김일성저작집』 제1권, 384쪽의 내용을 김창호, 앞의 책, 176쪽에서 재인용.

『김일성 종합대학 10년사』에서도 김일성대학을 모체로 한 대학 확장 계획이나 생각은 아직 발견할 수가 없다. 또한 대학 하나를 세우고 운영하는 일만 해도 힘에 겨운 상태였으므로 애초부터 대학 확장 방안을 뚜렷이 가지고 대학 설립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물론 김일성대학 분리안은 북한 내부에서 먼저 제기, 추진된 것으로 보여진다. 소련의 전문가단이 들어오기 전인 1948년 6월 말에 그에 대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⁵²⁾ 이어 7월 초에는 “인민경제 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고등기술자를 대중적으로 양성할 목적”으로 과학기술계 학부를 몇 개의 독립된 대학으로 분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북조선 고등교육사업 개선에 관한 결정서>가 발표되었다.⁵³⁾ 바로 과학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공과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을 이전의 김일성대학을 모체로 해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같은 대학 확충 계획이 세워질 수 있게 된 데에는 소련 전문가단의 방문과 그에 따른 소련의 대대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이전부터 이미 소련의 학자들이 북한으로 파견되고 도서를 비롯한 실험기자재가 제공되었으며 7월에는 대규모 학자일행이 북한의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가세하였던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의 대대적인 지원을 계기로 대학을 대폭 확장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추진 방향 역시 당시 소련의 대학체제를 본따서 짜여진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김일성대학의 분리에는 대학 자체의 내부 조건이 또한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생각된다. 자체 준비와 역량을 전반적으로 갖추어 겨룰도 없이 전문화된 대학으로 분리가 추진됨에 따라 결국은 그동안 형성된 학부 기반, 즉 교수진, 학과, 건물, 설비 등이 대학 분리의 형태를 결정짓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학부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다져져 있던 공학, 의학 등은 소련의 대학제도에서도 그 비중이 컸던 만큼 이들을 분리시켜 고등교육을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조치로 여겨졌다.

소련의 경우 각 지역별로 한두 개의 종합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문분야별로 특화된 단과대학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단과대학은 상당수가 급속하게 성장중인 공과를 비롯한 과학기술계 대학들이었다. 고등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들의 전공 분포를 볼 것 같으면 공과가 40.2%로 단연 많았고 농과 12.4%, 의과 12.2%, 이과 4.8%로 이들 과학기술 분야가 전체의 약 70%에 이르렀

52) 김창호, 앞의 책, 197쪽에는 김일성이 김일성대학 총장에게 대학 분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써여져 있다.

53)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 고등교육사업 개선에 관한 결정서”, 北朝鮮人民委員會 司法局 編纂, 앞의 자료. 이들 대학은 나중에 그 명칭이 평양공업대학은 김책공업대학, 평양농업대학은 원산농업대학으로 각각 바뀌었다.

다.⁵⁴⁾

따라서 이학 관련 학부로 기존에 있던 물리수학부와 화학부, 그리고 새로 신설된 생물학부는 김일성대학에 그대로 두되, 공학부는 평양공업대학(학장 립극제), 의학부는 평양의학대학(정두현), 농학부는 평양농업대학(리순근)으로 1948년 9월에 개편되었다(표 5). 이들 과학기술계 대학은 개설과정에서 규모가 더 확대된 반면에 김일성대학은 원래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로써 이들 대학에서 과학기술계 모집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5%(공학 37%, 이학 14%, 의학 10%, 농학 14%)로 커졌다. 수업년한은 대학의 기계공학부와 의학부는 5년, 농업대학은 3년으로 하고 그밖의 다른 학부는 일률적으로 4년(농업대학 수의축산학부 포함)으로 조정되었다.⁵⁵⁾

<표 5> 김일성종합대학의 분리안 (1948. 9)

대 학	학 부	모집인원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수학, 화학, 생물학, 역사문학, 경제법학부	570명 (문과 350/ 이과 220)
평양 공업대학	광산지질학, 금속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운수공학, 섬유공학, 건설공학부	570명
평양 의학대학	의학, 위생학, 약학부	150명
평양 농업대학	농학, 양잠학, 수산학, 립학, 수의축산학, 농업토목학, 농업경영학부	240명 (문과 30/ 이과 210)
총 계	4대학 22학부	1,530명 (문과 380/ 이과 1,150)

자료: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 고등교육사업 개선에 관한 결정서”, 『法令公報』第56號(1948. 7. 22).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북한에는 3년제 이상의 대학으로 홍남공업대학(47년 설립), 함흥의과대학(46년), 청진의과대학(48년), 평양사범대학(48년)이 운영되거나 세워졌다. 입학정원은 홍남공대 210명, 함흥의대 150명, 청진의대 90명, 평양사대 150명(이과 약 50명)이었다. 그리고 김일성대와

54) 北朝鮮人民委員會 宣傳部 教育局, “技術教育 振興에 關한 宣傳要綱”, 『민주일보』 (1947. 7. 23).

55)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 고등교육사업에 관한 결정서”, 앞의 자료.

평양공대, 홍남공대, 평양농대에는 야간대학이, 김일성대에는 부속 통신사범대학이 설치되었다. 이와 더불어 평양공대에는 산업부문의 “지도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특별학부가 개설되었다.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들 중 야간대학 모집정원은 평양공대 120명, 홍남공대 180명, 평양농대 60명이었고 평양공대 특별학부는 150명을 뽑기로 되어 있었다.⁵⁶⁾ 이들까지 전부 고려할 경우 북한 고등교육에서 과학기술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때를 계기로 실로 대단히 커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학 분리 이후에 이들 신규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과학기술계 교수인력을 대거 확보하는 일이었다. 건물은 마침 이 때에 신교사를 지었기에 평양공대와 평양의대는 구교사를 쓰면 되었고 실험설비를 비롯한 교재, 교과과정, 조직구성 등은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에 기댈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교수인력은 소련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다소 보탬이 되기는 했지만 교육대상과 연구과제의 급격한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수적으로 너무도 부족하였다. 당시는 이미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던 때여서 남한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자를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전문인력을 총동원해서 자체적으로 교수인력을 충원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신입교원은 공장, 병원 등과 같이 현장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대거 끌어 모아서 확보하게 되었다. 우수한 인력이 드문 상황에서 1949년 초까지 교수인력이 약 2배로 늘어났으므로 불가피하게 학력 및 경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는 결과가 빚어졌다.⁵⁷⁾ 평양공대의 경우 평양의대보다도 심해 새로이 충원된 전공교원 34명 중 대다수는 전문학교 졸업 학력자였고 5명 정도만이 대학 졸업 학력자였다. 이마저도 정부부서나 다른 학교, 혹은 월북인사로부터 어렵게 충원된 사람들이었다.⁵⁸⁾ 그만큼 북한은 이들 분리된 대학이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애썼음을 알 수가 있다.

이후 김일성대학은 이학을 제외한 과학기술계 학부들이 독립되자 인문사회계 학부들을 대거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역사문학부가 역사학부, 조선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로, 경제법학부는 경제학부, 법학부로 나뉘어졌고 지리학부와 교육학부가 신설되었다. 이렇게 10개의 학부 중 7개가 인문사회계 학부로 편제됨에 따라 학생규모는 물론 교수구성에서도 인문사회계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⁵⁹⁾ 결과적으로 김일성대학은 투철한 사상성에 기반한 인문학과 사회과

56) 같은 자료; 김창호, 앞의 책, 205-206쪽.

57) 김근배, “초기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의 창출”(2000, 미발표).

58) 평양공업대학, 『리력서』(1949. 1); 평양의학대학, 『리력서』(1949. 1).

59) 인문사회계의 비율이 학생은 73%, 교원은 75%에 달하였다. 김일성 종합대학, 앞의 책, 42-43쪽.

학을 위주로 하는 인문사회계 중심의 대학으로 바뀌어졌던 것이다.

반면에 평양공대와 평양의대 등은 그와 다르게 과학기술의 전문성에 중점이 두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동안 김일성대학이 출범한 후 다른 무엇보다 사상교육의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했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기간은 겨우 1년 반 정도에 불과했음을 알 수가 있다. 게다가 새로이 임명된 사회과학 담당 교원이 평양공대 4명, 평양의대 2명으로 전체 교원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었을 뿐더러 그들은 대부분 대학교원으로 갓 임용된 사람들이었다.⁶⁰⁾ 김일성대학의 관련 과목 교원들은 이들 과학기술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꺼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대학에서는 김일성대학과는 달리 사회과학과 로어과목 외에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인문사회계 과목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학내의 분위기도 구제 전문학교 출신의 교수 및 학생들이 주도하며 과학기술 관련 학문이 인문사회계의 지적인 풍토를 압도하는 경향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

이전부터 과학교원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상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47년 중반에 씌어진 글⁶¹⁾이긴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까지도 아직 자연과학은 불편부당(不偏不黨)이며 세사(世事)를 초월한다고 은연히 믿고 있는 학자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에만 열중하면 될 뿐 정치, 사상, 철학과는 관련이 없는, 오히려 그런 것이 과학기술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대거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과학기술과 정치사상의 분리, 과학기술의 순수성 유지가 과학활동과 그 발전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금일의 빨조아 자연과학이 사회과학에 결코 못지 않게 기형적이며 계급적이라는 점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사실이다”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1950년에 씌어진 한 글을 통해 우리는 당시 평양공대의 실상을 다소 엿볼 수가 있다.

과거 평양공업대학이 가지는 정치사상 교양사업에서의 결함은 일부 학생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낡은 부르조아사상 잔여와의 투쟁이 미약한데서 기술을 천시하거나 혹은 그 기술이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되어야 한다는 고상한 영예감이 적은데로부터 학업성적이 계속 높은데로 추동되지 못하였다. 또는 일부 학생들 중에는 기계적으로 기술만 배우면 된다는 듯이 맑스-레닌주의와 선진 과학기술을 습득함에 있어 불가결의 조건으로 되는 로어를 소유함에 대하여 태만하였기 때문에 이 과목들에서 수다한 락제생을 낸 사실까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평양공업대학 민청 앞에는 동맹정치사상교양사업의 강화를 위한 투쟁이 가장 중요한 임무로 제기되고 있었다.⁶²⁾

60) 평양공대의 『리력서』에 소개되어 있는 그들의 인적 사항을 통해 세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61) 韓형기, “自然科學教育에 關한 몇가지 當面問題”, 『人民教育』(1947. 5), 30-31쪽.

62) 리경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는 새 세대들: 평양공업대학에서”, 『청년생활』(1950. 4), 41쪽.

이는 같은 시기 김일성대학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았던 점과 비교해 볼 때 양자간의 차이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감지하게 해준다.

이상에서 보듯 김일성대학은 소련의 본격적인 원조와 도움에 힘입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전문영역별로 분리된 대학들로 발전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서 추구하던 전문성과 사상성이 조화, 통일을 이루기보다는 다분히 어느 한 쪽으로 기운 모습을 띠게 하였다. 김일성대학이 새로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사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평양공대와 평양의대는 상대적으로 그로부터 벗어나 기술적, 실용적 전문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김일성대학의 재빠른 분리는 이같은 경향을 일찍이 노정시키고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가 서로 융화를 이룰 사이도 없이 독립된 대학으로 분리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로간에 간극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만약 해방직후 북한에 평양공전과 평양의전 같은 전문학교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빨리 종합대학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종합대학의 모습은 과학기술에 치중되었던 당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소련이 북한의 대학에 미친 영향도 아주 상이하게 나타났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남한을 염두에 두고 종합대학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계승, 활용하는 온건한 정책을 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평양공전과 평양의전이 새로 설립되는 김일성대학의 실질적인 모체가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6년 10월에 세워진 김일성대학은 학부조직, 학생구성, 교수진, 건물시설 등 모든 면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핵심을 차지하는 모습을 띠었다. 그와 함께 한편으로는 전문학교 소속의 학생과 교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상경향까지도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곧이어 다음해부터 대학 내에 밀어닥친 소련을 본받으려는 움직임은 김일성대학의 구조와 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소련대학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마련한 교과과정은 전공과 관련된 기초학과와 전공학과에 비중이 두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별 연구집단을 육성하기 위한 카페드라 제도는 대학 내의 학문활동을 한층 조직화, 집단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아쓰빠란트라가 세워져 고급인력 양성과 학술연구를 총괄함으로써 교육과 연구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학문추구 방식과 잘 어울리며 관련 학부들이 다른 학문분야에 앞서 기반을 다지고 원할한 운용을 기할 수 있게 해주었다.

물론 김일성대학에서는 학생 및 교원들의 정치적 사상성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적으로 열성분자들인 혁명가의 가족이나 근로인민의 자제들이 대학에 광범위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과를 특별히 설치해서 운영하였다. 대학 당단체는 민청과 함께 다양한 조직체계를 만들어 정치사상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각종 씨클 및 문화활동을 통해서 다른 정서와 생활을 익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근로인민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사상적 자각을 한층 더 받게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교원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전공 이외에 맑스-레닌주의, 정치철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았다. 검열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어 심한 비판을 받거나 심지어는 대학에서 쫓겨나는 교원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김일성대학은 1948년 중반 소련에서 파견된 전문가단이 대학 전반의 자문 및 교육에 참여하면서 전문영역별로 분리, 독립된 대학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맞았다. 자체적인 준비와 역량이 적절히 갖추어질 사이도 없이 소련의 대학체제를 본따 종합대학과 함께 특화된 여러 개의 단과대학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 기반이 가장 건실하게 갖추어져 있던 공학부, 의학부 등이 우선적으로 분리, 확장됨으로써 평양공대, 평양의대, 평양농대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과학기술계 고등교육이 매우 빠르게 안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대단히 높아졌다.

이는 동시에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나아가 여기서 배출되는 엘리트집단 간에 적지 않은 구분과 차이를 낳게 하였다. 김일성대학은 이후 학부구성, 학생정원, 교수진 모든 면에서 인문사회계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사상성이 강화되었다. 반면에 평양공대 등은 과학기술계 전공의 영향력이 확장되며 상대적으로 기술적, 실용적 전문성이 강조되는 학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엘리트 집단, 즉 이데올로 그 대 테크노크레트가 배출되는 제도적 기반이 아주 일찍이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김일성대학은 이전의 오래된 유제와 소련의 새로운 영향이 상호작용을 하며 독특한 모습으로 발전, 분화되었다. 때이른 과학기술계 전공의 급속한 확대와 기술적 전문성에 기울어진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은 이 시기에 이루어진 가장 주된 특징적인 내용이었다. 이는 결국 나중에, 특히 1950년대 후반에 급부상하는 기술관료들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토대로 자리매김하여 나갔다.